

일본전기계, 전력소매자유화 고압까지 확대

전기사업분과회 합의, 실시시기는 미정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전기사업분과회 기본문제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3일 제3회 회합에서 전력 소매 자유화 범위를 현행의 특별고압(사용규모 2,000kW)부터 고압(50~2000KW)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사무국안을 발표했다. 실시시기에 관해서는 수용가 등의 의향을 검토하기로 해 다음 번의 분과회에서 자유화 범위 확대의 내용이 나타날 전망이다.

지난달 열린 제13회 분과회에 보고하는 분과회에서 최종보고를 통해 경제장관이 답신한다. 현재 제도에서는 전 수요의 약 30%가 자유화 대상이지만 고압까지 확대하는 것에 의해 중소 규모 공장 등 60%가량의 수요규모가 경쟁 분야가 된다.

경제부 자원에너지청에 의하면 고압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으나, "향후 일정은 수용가의 의향을 근거로 해 검토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 자유화 범위 확대의 구체적인 시기는 분과회에 맡기게 됐다.

또, 특정규모전기사업자(PPS)의 위원으로부터 △ 수요가의 희망 △ 중립기관이나 거래시장 등 제도 전체의 정합성 등을 요건으로 가능한 일정을 분과회에서 명시받고 싶다는 발언으로 소위원회에서는 이 의견을 분과회에게 전임시키는 일도 승낙했다.

사무국의 에너지청은 고압까지 확대하는데, 중립기관의 설치를 통한 송배전 부문의 투명성 확보로 시장 참가자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과 거래시장의 설립에 의한 전력거래의 활성화가 전체라고 지적했다. 계통 이용의 중립기관, 사전력 거래시장을 2005년도까지 정비하는 것나 현행의 동시동량 제도, 대체 공급제도의 개정에 대해 1~2년의 준비기간을 마련하는 등의 일정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설계의 구체적인 논점을 심의해 온 소위원회의 시장환경정비, 계통이용 제도의 WG은 지금까지 각 4회의 회합을 거쳐 중간법인을 운영 주체로 하는 사거래 시장의 골격이나 송전 부문의 공평성을 부문간의 정보차단·구분경리 등의 철저한 시행에 의한 행위규제를 담보하는 등의 방향성을 정하고 있었다.



일본전력 10개사 중간결산, 전력 10개사 매출 3.6% 감소 7조 5,186억엔

원자력동률 84.2% 경영이익 3년만에 증액 전년대비 8.2% 증가

전력10사의 2002년도 중간결산 관련자료가 지난해 11월 20일 발표됐다.

도쿄, 토호쿠, 추후의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수입감소로 10개사 합계 매출고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 감소한 7조5,186억엔을 기록했다.

원자력발전소가 84.2%로 높은 가동률을 보였고 금리저하에 동반해 지불이자의 감소가 경영비용 감소로 이어졌으며 경영이익은 같은 기간에 비해 8.2% 증가한 9,023억엔을 기록, 지난 99년도 중간결산 이래 3년만에 감수감익이 되었다.

판매전력량은 전년과 거의 같은 수준인 4,205억kWh로, 연간 통틀어 거의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확보할 전망이었지만 각사의 요금인하 영향 등으로 연말 결산은 2년 연속 감수감익이 될 전망이다.

한편 2002년에 실시한 요금인하에 따라 수지에 미칠 영향은 10社 합계 6,200억엔을 내다보고 있다.

상반기 10개사의 판매고중 요금인하를 실시한 도쿄(4월), 토호쿠(7월), 추후(9월)의 3사 합계는 약 1,900억엔 수입이 줄었으며 특히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약 2,800억엔의 감소를 보였다. 타수익을 추가한 경영수익은 같은 기간에 비해 35%인 약 2,900억엔이 감소해 7조5,462억엔을 기록했다.

비용면에서는 원유가격 저하나 원자력발전소의 순조로운 가동에 따라 연료비가 10社 약 1,200억엔 감소되었고 평균 2%대의 금리저하로 인한 지불이자 감소로 경영비용은 전년대비 5.2%가 감소됐다.

이에 따라 10社 합계 경영 이익은 지난 78년 이후 두번째에 해당하는 9,023억엔, 전년대비 8.2%인 684억엔의 이익 증가를 기록했다.

판매전력량은 거액거래가 0.3% 증가하였고 철도망, 화학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회복의 실마리를 보인 외에는 지난 8~9월의 높은 기온에 의해 0.03%의 미미한 증가에 그쳤으나 2년 만에 겨우 증가로 돌아섰다.

원자력설비 이용률은 지난 1월의 토호쿠전력 女川3호기 영업운전 개시 등의 영향으로 전년 같은 기간부터 4.2포인트 상승한 84.2%의 높은 가동률을 보였다.

매상고 경영이익률은 12.0%, 매상고 영업이익률은 16.9%, 10社 합계의 이자부채잔고는 상반기말로 27조 1,219억엔, 연말 26조7,973억엔이 예상되고 있다.